내 마음 승천 없이 하나님 임재 없다

(신명기 12:1~14)

9.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 승천 없이 하나님 임재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마음 승천 없이 하나님 임재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의 신앙과 구분 짓고 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승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때 역사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승천하는 일이 없으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할 하나님의 임재도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신6:5~9절의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는 쉐마의 말씀이 굉장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은 집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앉아 있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고,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라는 말은 '쉐마 말씀을 쓴 양피지를 조그만 박스에 담아서 팔찌로 끼라'는 것인데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그런 박스를 머리 이마에 둘러서 띠로 매라'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 얼굴을 비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말씀은 집밖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밖에서 집에 들어 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선민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요.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수능을 잘 봐서 서울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출장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지 거래처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이 아들이 서울 대학 들어갔다는 사실에 붙어 있으므로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다 갑니다. 앉아 있을 때에든지, 집에 갈 때에든지, 서 있을 때에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손을 대서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그 사실에 마음이 붙어 있으면서 일을 하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고 집을 나오고 다 하는 것입니다. 잘 때도 그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자고, 일어날 때에도 그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이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서 머물러 있으라는 얘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구름 위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땅위에서의 삶이 진행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구름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중앙 성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앙 성소'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장소로 생각하는데 맞으면서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장소로만 생각하면 틀린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한 곳을 택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중앙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성전을 생각하는데, 오늘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쪽만 생각하는 것이고, 임재를 완전히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해주려

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임재편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만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편향주의적으로 굳어버리면, 반쪽 신앙이고 장애적인 신앙이며 결국 소멸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이 아니므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중앙 성소를 얘기하는데 굳이 '이름을 두셨다'고 이름을 꼬집어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에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역사입니다. 시내산 강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산이 진동하고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우레가 치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구약에서도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멀리멀리 떨어져 전국에 흩어져 살 때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다 임재의 사건들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실제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으로 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점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땅으로까지 찾아오시는 이유가 당신의 능력발휘를 통해서 우리의 지상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 때나 가나안 정복전쟁 때처럼 내 원수와 적들을 다 처단해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순절 날 성령강림만 바라고 계시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기를 꿈에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도 무효화 되어 버리고- 왜냐하면 임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오순절 같은 하나님의 임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재는 두 가지 다른 성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꼭 일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 임재는 이 세상에 임재 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에 닻을 내리고 정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 바람에 마음의 닻을 내릴 만큼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구름 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초청의 의미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재나 성막 성전의 임재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을 사시고 우리 마음을 끌어 당겨서 하늘로 초청하려고 하심입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자발성이 포함되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난 뒤로는 우리 마음을 하늘 위로 보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음이 머물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대에 들어간 자식의 사건에 마음을 둔 아버지가 그 사건에 마음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로 우리 마음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임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면, 우리 마음이 떠난 우리의 지상의 삶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이 임재는 사명적인 임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초청의 임재와 두 번째 사명의 임재 사이에 우리의 승천이 빠진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얘기를 해볼까요? 오순절의 얘기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첫 번째 임마누엘의 임재입니다. 그 공생애의 기간과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포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벼슬자리나 꿈꾸고 고기나 많이 잡아서 팔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로 끌어 모으셨고, 승천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그 마음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까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승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많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좋은 것과 기쁜 것과 만족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므로, 오순절의 역사가 사명적인 임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승천이 빠지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임재도 의미가 없어지고, 오순절 때 성령의 약속을 통해 임하시는 사명적인 임재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임재편향주의적 신앙에 머물러서 신앙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데,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복음 신앙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승천과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에 이름을 두실 곳을 정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이름과 존재 사이에 나타나는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이름과 존재 사이의 다이내믹'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들여놓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 존재를 향하여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내가 그것만 가지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실제 믿어지는 것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다면 나는 그 자식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 존재를 통해서만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이 들어와 있다면 사업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 사업체에서만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중앙 성소에 이름을 두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은 선민들이 다 부르고 있고 선민이 아닌 사람들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god이고 모든 다른 종교의 신들도 영어로는 god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실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민들을 향해 찾아오신 이유는 선민들의 마음이 승천을 하게 하려고 하심인데, 땅으로부터 하늘로까지의 공간이동 추진력이 어떻게 생기냐는 것인데, 이 추진력은 선민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면 그 하나님이 가리키는 존재는 구름 위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승천할 수밖에 없는 이름과 존재 사이에 생기는 다이내믹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를 한 곳에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이유는 승천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임재편향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닻이 아직도 세상에 내려져 있다는 것이고 요지부동으로 세상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기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게 됩니다.
신약의 성육신의 임재, 구약의 시내산의 강림,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기적과 같은 첫 번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이름들이 들어와서 요지부동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만 하셔야만 하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잘 살겠다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다가는, 그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은 풍요와 다산을 나도 모르게 유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다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에 편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금송아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존재를 위해 노예를 부리듯이 부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 성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

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제사(번제)입니다. 히브리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기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추구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중앙 성소에 이름을 두시는 이유는 승천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있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중앙 성소로 가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넣을 수 있고 그곳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거나, 내가 떠나 있을 때에는 상번제가 드려지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죽는다고 여깁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의 삶의 현장에 나가 살면서 내 마음 속의 지성소에 자꾸만 세상 것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이름의 존재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려는 성향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야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앙 성소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재편향주의적 착각에 빠져 있어서 성전을 예배당으로 생각하는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도 성전이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중앙 성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가나안 전체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선민 전체가 교회이지, 어느 지역의 예배당 건물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일부입니다.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선민이 교회이고, 이 선민들의 마음이 찾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중앙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칭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면서 금방 내려와서 세상을 사니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게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민들의 마음의 승천이 일어나지 않는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임한 첫 번째 초청의 임재와 두 번째 임하는 사명의 임재를 다 무효화 시켜버리고, 마음에는 십자가를 놓쳐서 결국 마음의 지성소에는 이 세상 존재의 이름이 들어와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보니 첫 번째 초청의 임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사명적인 임재는 착각하게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만을 바라게 됨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둘 한 장소를 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

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다 사칭하는 것이고 도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합니다. 석가모니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던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사람들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가리킬 때에 부처가 되는 길을 보지 않고 석가모니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석가모니는 ‘내가 달을 가리켜도 달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손가락을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리키시고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관계에서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가능성이 십자가를 통해 열렸고, 십자가를 통해 연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다 도용하는 것이고 사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 마음은 승천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승천 없이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첫 번째 임재의 의미도 무효화시키고, 마음이 승천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름 위로 우리 마음이 승천하는 것인데, 이 세상 좋다는 것을 다 등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승천하려면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는 이 세상 좋은 것들의 이름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오실 수 있고, 십자가의 주님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 성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중앙 성소이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겨지고 이름과 존재의 다이내믹을 통하여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해 들어가며 기필코 마음이 승천하여 마음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명적인 임재까지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